

<신성우 언어논리 1회차 출제 오류>

논리퀴즈 11번 / 30번 출제 오류입니다. 문항 변경하였습니다.

<신성우 언어논리 1회차 변경사항>

문제 4번의 선지 3 / '경향이 있다' 추가

- 타당한 문제제기입니다. 다만 다른 선지가 명확히 답이 아니기에 정답 변경은 하지 않겠습니다.

문제 12번 선지 1 / '부당한 논증에서' 추가

- 매개명사도 결론의 주어나 술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만 타당한 논증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. 문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변경합니다.

<신성우 언어논리 1회차 기타 오류제기 사항 : 문제 없음>

6번 선지 4 중 ㄱ

ㄱ은 5번도 됩니다. ㄴ 때문에 답이 한정됩니다. 주어-서술어, 목적어-서술어, 부사어-서술어의 예시가 나와있습니다.

9번 ㄴ

- ㄴ의 경우 전건이 거짓이 되어 보기 선지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경우입니다.
- 지문에서 학교장 B는 참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. 따라서 전체 조건문은 전건이 F가 되어 반드시 참이 됩니다. (2022년 20번 기출에 후건이 긍정될 경우 해당 조건문이 반드시 참이 됨이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, 전건이 부정될 경우 해당 조건문은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을 문제화 했습니다.)

18번 ㄷ

ㄷ은, 지문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.

28번 선지 3

첫 문장에서 매칭 알고리즘은 미리 저장해 놓은 인덱스를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. 따라서, 인덱스가 없을 경우 매칭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. 작동하는 경우에만 그 속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따라서 선지 3번을 지문의 정보에서 단정하여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.